ISSN 2093-3282 Vol. 1 No. 31

10-31호

Provincial Economic Trends in China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10년 10월 8일

베이징(北京)시 인재육성 및 유치 방안과 평가

KIEP 1990-2010

김 부 용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초청연구원 (furongjin@kiep.go.kr, Tel: 3460-1282)

▣ 2010년 8월 2일, 베이징(北京)시 당국은 고급인재 육성 및 유치와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경제권 형성을 위한 「수도 중장기 인재발전 계획요강(2010~20년)」(「首都中長期人才發展規劃綱要(2010~20年)」을 발표하였음.

- 이 계획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2020년까지 노동연령 인구 중 고등교육 수혜자 비율을 42%, 기술직 중 첨단기술 인재 비율을 30%, 인재공헌도는 60%로 향상시킬 계획임.
- 중관춘(中關村) 등을 인재특구로 지정하여 인재육성 허브로 조성함과 동시에, 해외의 경쟁력 있는 지역과 교류를 활성화해 서로 상관된 산업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함.
- 또한 징진지 지역의 인재를 통합하여 활용하기 위해 동 지역 내 고급 인재들에게 호적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도록 함.

▣ 베이징시의 인재육성 및 유치방안은 중국의 인재강국 전략과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그리고 베이징시의 세계도시 건설과 징진지 지역통합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것임.

- 중국은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해 인재로 산업 특히 첨단기술 산업과 신흥 산업을 이끄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세계도시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베이징시는 인재육성 및 유치를 통해 뉴욕, 런던, 동경 등과 맞먹는 세계 일류의 인재도시로 발전하고자 함.
- 징진지 지역의 호적이전 자유화는 최근 징진지 지역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역내 산업이전의 수요에 따라 인재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 베이징시 인재육성 및 유치정책은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향후베이징시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베이징시 '해외인재 유치 프로젝트'가 2009년 4월에 실시된 이래 현재까지 88명의 해외 고급인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베이징시에 안착하였음.
- 이 인재들은 첨단기술 산업발전에 일조하고 있어 베이징시 산업 업그레이드와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1. 「수도 중장기 인재발전 계획요강」의 주요 내용

■ 2010년 8월 2일, 베이징(北京)시 당국은 고급인재 육성 및 유치와 징진지(京津冀) 경제권[1] 형성을 위한 「수도 중장기 인재발전 계획요강(2010~20년)」(「首都中長期人才發展規劃綱要(2010~20年)」을 발표하였음.

- 이 계획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2020년까지 노동연령 인구 중 고등교육 수혜자 비율을 42%, 기술직 중 첨단기술 인재 비율을 30%, 경제성장에 대한 인적자본의 공헌도는 45%, 인재공헌도는 60%로 향상시킬 계획임.

- 동시에 노동인구 만 명당 R&D(연구개발)인력은 260명,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건수는 3,000건(그 중 발명특허 출원건수가 800건)에 도달하게 할 목표임.[2]

- 이를 위해 베이징시는 베이징대학(北京大學), 칭화대학(淸華大學) 등 유명 대학에 시립 학원 혹은 연구소를 설립하여 필요한 인적자원을 기획, 양성하기로 하였으며, 중관춘(中關村) 등을 인재특구로 지정하여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촉진하기로 함.

○ 이들 인재특구에서는 국외의 선진 경험을 참고하여 국내 최초로 국제일류 수준의 창업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지역 내 창업기업을 활성화하여 첨단기술산업과 신흥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음.

- 산업집적을 통해 인재가 집결되도록 하기 위해 세계 500대 기업, 다국적기업, 민영기업이 베이징에 본부를 두도록 정책적 지원을 함.

- 동시에 해외의 경쟁력 있는 지역과 교류를 활성화해 서로 상관된 산업간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본토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고자 함.

○ 이러한 산업간 협력체제 구축으로는 '중관춘-실리콘밸리-방갈로르'(인도의 실리콘밸리)', '베이징시 금융가-월스트리트', '베이징시 CBD-맨하튼', '베이징시 화이로우(懷柔, 중국의 영화중심지)-헐리우드' 등이 있음.

- 또한 이 계획에서는 징진지 지역통합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동 지역내 고급 인재들에게 호적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학교 입학 및 의료보장 등 사회복지 혜택이 동등하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임.

---

1) 징진지(京津冀) 경제권은 베이징(北京)시, 톈진(天津)시 및 허베이(河北)성을 아우르는 경제권을 가리킴.
2) 중국에서 특허는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세 가지로 나뉘며, 그 중 발명특허가 한국의 특허에 해당함.

Provincial Economic Trends in China

- 이밖에 인재육성과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베이징시 당국은 보수, 사회보장 등 근무조건들을 국제표준에 맞게 갖출 계획이며, 인재육성과 유치를 위해 12대 중점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음(표 1 참고).

표 1. 12대 중점 프로젝트

12대 중점 프로젝트 명칭	프로젝트 주요 내용(목표)
인문·사회분야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	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 500명 양성
과학 관련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	100명의 글로벌 과학인재 양성, 일련의 국제수준의 실험실과 인재양성 시범기지 건설
녹색산업 분야 인재 양성 프로젝트	신에너지,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녹색농업 등 녹색산업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재 양성
해외인재 유치 프로젝트	10여 개의 해외인재 창업단지 조성, 1,000여 명의 해외 고급 인력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반 제공
유명 교육자 양성 프로젝트	우수한 교육인재 1,000명 양성, 수도의 교육에 중요한 공헌을 한 '수도 교육자' 100명 양성
의료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	의료 분야 전문가 500명을 양성 및 유치, 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한 혁신적인 플랫폼 구축
우수 기업가 유치 및 양성 프로젝트	국제적 지명도를 가진 글로벌기업 최고경영자(CEO)급 인재 10~20여 명, 우수 기업가 100여 명, 경영인재 1,000여 명 양성 및 유치
첨단기술 인재 양성 프로젝트	첨단기술 인재 120명을 양성하여 기술직중 첨단기술 인재비율을 30%로 확대
베이징 근교 농촌 실용인재 양성 프로젝트	농촌 실용인재 5만 명과 고급 농촌 실용인재 2,000명 양성
사회사업 인재 양성 프로젝트	사회사업 인재 총수가 8만명에 이르게 하고, 사회사업 관련 전문가 4만 명, 고급 인재가 1,000여 명 양성
당정인사 자질 향상 프로젝트	대규모의 간부 교육을 시행하여 지도자의 종합자질과 국제화자질 향상
청년 인재 양성 프로젝트	매년 중점 학과와 중점 산업 관련 1,000여 명의 청년 우수인재 양성

자료: 『수도 중장기 인재발전 계획요강(2010~2020년)』.

- 이 계획은 세계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최근 인재강국 전략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인 베이징이 이에 부응하여 발표한 것으로 지역 차원의 첫 인재육성 방안임.

2. 중국의 인재육성 및 유치방안

■ 최근 중국정부는 국가 차원의 해외인재 유치에 나섰는바, 해외에 나가 있는 고급 인재들을 중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장강학자 장려계획(長江學者獎勵計劃)', '천인계획(千人計劃)'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음.

- '장강(長江)학자 장려계획' 은 대학교 중점학과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특별교수 초빙'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3)]

- 즉, 국제학술 분야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학자를 국내외로부터 유치하여 중국 대학교의 학술적 지위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프로젝트는 2004년부터 규모가 확대되어 해마다 100명에 달하는 학자들을 '특별초빙교수' 로 초청하고 있음.

- '천인계획' 은 2008년 말부터 시작하여 5~10년 동안 세계적 수준의 해외 학자, 기업가, 전문기술 인재, 경영 인재 등 2,000명을 영입하여 국가 중점 프로젝트, 대학과 연구기관, 중앙 국유기업[4)]과 국유상업은행, 첨단기술산업개발구 등에 유치할 계획임.[5)]

○ 대상자에게는 일시 보조금으로 100만 위안이 주어지며 출입국과 자녀의 학교 입학, 의료보장 등에서 특수 혜택이 주어지거나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함.

○ 이 계획이 실시된 이래 현재 각계의 글로벌 인재 825명이 중국의 대학과 기업 R&D센터에 둥지를 틀었으며,[6)] 올해 또 500명 가량의 해외 고급인재를 영입할 계획임.[7)]

■ 중앙정부의 ' 천인계획 '에 부응하여 각 지방에서도 2009년부터 잇달아 지역 차원의 해외인재 유치 정책을 내놓고 있음.

- 예를 들면 수도 베이징시의 '해외인재 유치 프로젝트(海聚工程)' , 동북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의 '해외인재 창업 프로젝트(海創工程)' , 중부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와 서부 닝샤(寧夏)회족자치구의 '백인계획(百人計劃)' 등임.

- 해외 고급인재 유치는 창업으로 지역의 첨단기술산업과 신흥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고 있음.

○ 후베이성의 경우 창업인재 비율이 해외 고급인재 유치 총 수의 50% 이상에 달하게 하며, 후베이성에서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장비제조, 첨단기술, 신소재, 농산품가공, 물류 등의 분야에 유치될 계획임을 명시하였음.[8)]

---

3) 장강학자 장려계획 사이트(http://www.cksp.edu.cn).
4) 중국의 국유기업은 정부의 권한에 따라 중앙 국유기업과 지방 국유기업으로 나뉨. 중앙 국유기업은 중앙정부 감독하의 국유기업이며, 지방 국유기업은 지방정부 감독하의 국유기업임.
5) 천인계획 사이트(http://www.1000plan.org).
6) 『人民日报海外版』(2010. 08. 14),「"千人计划"2岁了」.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10-08/14/content_596004.htm)
7) 『人民日报海外版』(2010. 04. 10),「"千人计划" 海外纳才创新业」.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10-04/10/content_483276.htm?div=-1)

■ 2010년 6월, 중국정부는 첫번째 중장기 인재발전 계획으로 「국가 중장기 인재발전 계획요강(2010~20년)」(「國家中長期人才發展規劃綱要(2010~20年)」)을 발표하였음.

- 이는 인재강국으로 나아가려는 중국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최근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함.

- 이 계획에 따라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총 1억 8,000명의 인적자원을 보유하게 되며, 인적자본투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상승하게 됨(표 2 참고).

표 2. 중국의 인재육성 주요지표

지표	2008년	2015년	2020년
인적자원 총량(만 명)	11,385	15,625	18,025
노동자 만명당 R&D 인원수(명)	24.8	33	43
기술직중 첨단기술인재 비율(%)	24.4	27	28
노동연령 인구중 고등교육 수혜자 비율(%)	9.2	15	20
인적자본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10.75	13	15
인재공헌도(%)	18.9	32	35

주: 인재공헌도는 경제성장에 대한 인재자본의 기여도를 나타냄. 표에 기재된 인재공헌도는 기간 평균치임. 즉 2008년 수치는 1978-2008년 평균치, 2015년 수치는 2008-2015년 평균치, 2020년 수치는 2008-2020년 평균치임.

자료: 『국가 중장기 인재발전 계획요강(2010~2020년)』.

■ 이에 각 지방에서도 『중장기 인재발전 계획요강』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으나, 수도 베이징시가 이 계획을 발표한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음.

- 이는 세계도시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베이징시가 세계 일류의 인재도시로 육성됨으로써 세계도시 건설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됨.

- 징진지 지역 내 호적이전의 자유화는 환발해만 경제권의 급부상에 따른 징진지 지역통합의 가속화를 의미함.

3. 베이징시 해외인재 유치 현황

■ 베이징시 '해외인재 유치 프로젝트'가 2009년 4월에 실시된 이래 현재까지 88명의 해외 고급인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귀국하였으며, 올해에도 215개 직위에 해외 고급인재를 유치할 계획임.9)

8) 『湖北省科学技术厅』(2009. 7. 9), 「我省组织实施"百人计划" 大力引进海外高层次人才」. (http://www.hbstd.gov.cn/info.jsp?id=33956)
9) 『新京报』(2010. 5. 12), 「529个岗位海外纳贤」.

- 이들을 수요로 하는 기관은 주로 대학과 연구소, 국유기업, 금융기구 및 대형 비공유제 경제조직임.

○ 예를 들면 베이징공업대학(北工大), 퉁런(同仁)병원, 베이징 현대(北京現代), 중국의 인터넷 검색 1위 업체인 바이두(百度) 등임.

○ 2010년의 경우, 비공유제경제조직의 해외 고급인재 수요량은 전체의 59.4%를 차지함.

- 채용분야는 주로 전자정보, 바이오의약, 에너지, 환경보호, 문화교육, 위생의료 등임.[10)]

- 이 밖에 베이징시는 올해 교육 및 위생 관련 부서와 과학연구소, 국유기업, 외국투자기업, 금융기관 및 대형 비국유기업 등 모두 835개 각종 직위에 베이징시 외부 고급인재를 채용하기로 하였음.[11)]

■ 현재 베이징시의 6개 창업기업에 ‘천인계획’ 혹은 ‘해외인재 유치 프로젝트’에 선정된 2명 이상의 글로벌 인재들이 자리를 잡았으며, 베이징시의 첨단기술산업과 신흥산업의 발전에 일조하고 있음.[12)]

- 석유 탐사와 기술개발 연구 및 판매에 종사하는 LandOcean[13)]의 경우, 3명의 ‘천인계획’ 및 ‘해외인재 유치 프로젝트’ 인재를 확보한 이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 2009년까지만 해도 해외수입이 거의 없었으나, 2010년 들어 해외수입이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해외인재들이 가져온 선진적인 석유·천연가스 탐사 기술은 중국 국내의 공백을 메워 중국의 탐사기술을 향상시킴.

4. 평가 및 시사점

■ 중국의 인재육성 및 유치방안은 중국의 인재강국 전략의 시작을 의미하며, 중국이 인재를 통해 산업 업그레이드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을 의미함.

(http://epaper.bjnews.com.cn/html/2010-05/12/content_99192.htm)
10) 『新华网』(2010. 8. 9),「北京“海聚工程”显现对海外人才吸引凝聚示范作用」.
(http://news.xinhuanet.com/local/2010-08/09/c_12425815.htm)
11) 『新京报』(2010. 7. 21),「北京835高端岗位向全国纳贤」.
(http://epaper.bjnews.com.cn/html/2010-07/21/content_128182.htm?div=-1)
12) 『北京日报』(2010. 8. 07),「本市“海聚工程”呈现团队集聚效应, 6家创业企业拥有多名“千人”“海聚”人才」. (http://bjrb.bjd.com.cn/html/2010-08/07/content_303942.htm)
13) 정식명칭은 LandOcean Energy Services Co.,Ltd.(恒泰艾普石油天然气技术服务股份有限公司)임.

- 개혁 · 개방의 초기에 기술과 자금의 부족으로 외자를 유치하였다면, 오늘날에는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해 외자뿐만 아니라 인재유치도 중요시하고 있음.[14)]

- 중국이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산업 업그레이드는 내수확대와 함께 중국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이며, 중국은 인재로 산업을 이끄는 전략을 실시할 계획임.

○ 『국가 중장기 인재발전 계획요강』에서는 장비제조, 전자정보, 바이오의약, 신자재, 신에너지, 환경보호, 교육, 금융 등 중점 분야의 인재 육성을 가속화한다고 명시하였음.

■ 해외인재들의 귀국은 중국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발전성이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임.

- 귀국 인재들에 대한 중국정부의 창업 및 생활 면에서의 우대정책은 기업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재들의 심적인 부담도 덜어주었음.

- 그들의 귀국은 애국심에서 비롯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중국의 경제력을 높이 평가한 결과임.

○ LandOcen의 부총재 인쉬둥(尹旭東)은 "중국이라는 무대는 아주 넓지만 리스크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으므로 모험해 볼 만하다. 비록 현재 받는 임금이 국외의 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발전성은 무한하다" 고 말했음.[15)]

■ 베이징시의 인재육성 및 유치계획은 베이징시의 세계도시 건설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 베이징시는 2010년 1월에 개최된 양회에서 베이징시를 세계도시로 건설하자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16)]

- 베이징시가 뉴욕, 런던, 동경처럼 세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세계 일류의 인재도시로 육성되어야 할 것임.

■ 징진지 지역 내 호적이전의 자유화는 중국이 인재이동 활성화를 위해 호구제도를 완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징진지 지역통합의 가속화를 의미하기도 함.

---

14)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문헌을 참고 바람. 王辉耀(2010), 『国家战略 - 人才改变世界』, 人民出版社.
15) 『新华网』(2010. 8. 9), 「北京 " 海聚工程 " 显现对海外人才吸引凝聚示范作用」. (http://news.xinhuanet.com/local/2010-08/09/c_12425815.htm)
16) 베이징시의 세계도시 건설과 관련, 다음의 문헌을 참고 바람. 김부용(2010), 「중국성별양회의 주요내용과 평가: 베이징시」, 중국성별동향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중국의 호적제도는 호적 이외의 지역에 거주할 경우 자녀의 학비나 의료비 등이 비싸 거주이전의 자유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9년 의무교육의 실시로 중학교까지 학비가 면제이긴 하지만, 외지 학생에 한해 여러 가지 명분의 비용을 청구하며,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음.

- 징진지 지역 내 호적이전 자유화는 최근 징진지 지역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역내 산업이전의 수요에 따라 인재이동을 자유화하기 위한 것임.

○ 언론보도에 따르면 징진지도시권 구역계획은 현재 국무원에 올라가 논의 중이며, 올해 안에 비준을 받게 될 것임.[17)]

■ 중국의 인재유치 정책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존재함.

- 비록 정부에서 인재에 대한 각종 우대정책들을 펼치고 있긴 하지만 베이징시처럼 집값이 비싼 도시에서 거주하는 것은 여전히 국내외 인재들의 베이징시 진출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인재들이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의 일시적 지원금을 받긴 하지만 실제 지원금 사용 시 영수증 처리 등에서 절차가 까다로움.

- 또한 해외인재에 대한 편애정책은 본토 인재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

■ 중국은 인재유치, R&D 투자 확대, 교육의 질 향상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기술적인 면에서 한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바, 이는 한국정부 및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임.

- IMD(국제경영개발원)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의하면 2009년 중국의 국가경쟁력은 18위로 BRICs 국가들 중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한국(23위)과 일본(27위)보다도 앞서 있음.[18)]

- 이는 R&D에 대한 투자 확대, 교육 개혁 등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며, 향후 인재강국 전략으로 국가경쟁력을 더욱 제고시킬 방침임.

○ 중국의 GDP 대비 R&D 투자는 2000년 처음 1% 문턱에 들어섰고 2009년에는 1.6%로

---

17) 『21世纪经济报道』(2010. 5. 20), 「京津冀都市圈区域规划将出：中国经济“第三极”正式浮现」. (http://www.soubaoad.com/newsletter/3802.shtml)

18) IMD(2010),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0*.

올라갔으며, 2009년 베이징시는 5.9%로 전국 1위임.

-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인재로 산업을 이끄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정부 및 기업들도 향후 인재육성 및 확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KIEP